



(주)트루라이프

식품 웹사이트 리뉴얼 오픈기념 이벤트 진행



(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정세진)는 식품 브랜드 웹사이트(www.etrulife.com)의 리뉴얼 오픈 기념으로 오는 4월 6일까지 이벤트를 개최한다.

‘트루라이프와 함께하는 웰빙파트너 찾기 이벤트 Who AU!! - 댓글 달고~ 웰빙파트너랑 친해지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우리동네 ○○○ 웰빙파트너는 ○○○이다(글자수 제한 없음)’라는 문구에서 빈칸에 해당되는 내용을 채워 웹사이트에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벤트 당첨자 선정은 해당 지역 웰빙파트너의 이름과 특징을 정확하고 참신하게 써준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할 예정이며, 3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이 지급된다. 결과는 오는 4월 15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주)트루라이프는 국내 최초 레시틴 요구르트 ‘오늘아침레드레’를 출시함에 따라 기존 계란브랜드 사이트인 오늘먹는계란(www.oneulegg.co.kr)에서 트루라이프 식품(www.etrulife.com)으로 웹사이트를 변경, 오픈했다.

트루라이프 식품 웹사이트는 ▲제품소개 ▲웰빙이야기 ▲웰빙커뮤니티 ▲웰빙파트너 ▲이벤트 ▲사이버홍보실 ▲고객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의 : (032)509-5127~8

CJ제일제당 사료BU

서부사업부 비전 선포식 개최



CJ제일제당 사료BU(대표이사 김진수) 서부사업부는 지난 3월 20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부사업부의 군산공장 준공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비전 선포를 통한 구성원들의 단결과 힘찬 도약을 결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성호 서부사업부장은 ‘Real Champion of Feed Business in SeoBu Division’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본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매출/수익 극대화 위한 최강의 영업조직 전문화 ▲고객 니즈 만족을 위한 ID Feed Biz 확대 ▲지속적 성

과 창출로 Cost 경쟁력 확보 ▲핵심 역량 강화로 최고의 기술력 확보 등 4대 세부 미션을 공표했다.

이번 비전과 미션은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수익과 니즈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디자인됐으며 대대적인 조직재편과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서의 변화모색을 통해 고객을 위한 초일류 사료회사가 되고자 하는 CJ Feed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CJ의 한 관계자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최근 어려운 축산환경을 정면돌파 할 수 있는 자신감과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앞으로도 CJ Feed가 국내 토종사료 국가대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인(주)

아시아생산성기구 국제연구시찰단 용인GP 견학



우리나라의 농업관련산업과 친환경 농산물 관리 및 유통 체계와 더불어 국내 생산 및 유통 우수사례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20여개 아시아생산

성기구 대표 20여명에게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진행된 ‘농업관련산업/친환경 농산물관리 및 유통체계 국제연구시찰단 프로그램(아시아생산성기구/한국생산성본부 주최)’에 조인(주)(대표이사 한재권)가 선정되어 지난 3월 13일 용인GP센터 견학을 진행했다.

조인(주)는 이번 견학을 통해 왕성한 상호 교류로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고려비엔피

국내 최초 ‘아프라란 항생제 디스크’ 개발

국내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는 대장균 및 살모넬라증 치료에 효과적인 항생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송기연)에 의해 개발됐다.

이번에 개발된 항생제 디스크는 송아지, 돼지 및 닭에서 대장균 및 살모넬라증 치료에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인정된 아프라마이신(상품명 : 아프라란)을 이용한 것으로 설사 등 소화기질환이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고려비엔피는 ‘아프라란 항생제 디스크’를 전국의 진단센터 및 시험소에 무료로 보급하여 축산농가에서 보다 원활하게 본 개발기술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문의 : (031)478-5570

(주)카길애그리퓨리나**양계캠페인 회의 개최**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 정학상)는 지난 3월 21일 경기도 분당 소재 본사에서 최근 침체된 양계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차별화된 솔루션! 생산성 극대화!' 라는 주제로 양계캠페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양계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종계와 육계에서는 밀착 사양관리 서비스와 안정적이고 고품질 사료를 공급, 사양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해 함께 성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안형진 마케팅 총괄 부사장은 "현재 양계업은 지속적인 비용상승과 급격한 구조조정의 어

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은 생산성 극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뿐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배민황 양계담당 이사는 "시장을 선도하는 고품질 사료와 밀착된 현장중심 서비스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생산성 극대화에 도전해서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양계캠페인은 위기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해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의미 있는 회의이다.

홈페이지 주소 변경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최근 홈페이지 주소를 'www.purinafeed.co.kr' 로 바꾸었다. 

양계농가 사료값 급등 '비상'

산지가격 물가상승률 못 미쳐 채산성 악화

국제곡물 시세 급등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양계농가와 닭고기 가공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강원농협에 따르면 산지 닭고기 도매가격은 kg당 2,417원으로 지난해 말(2017원)에 비해 400원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농협사료 황성공장에서 출고되는 병아리용 사료(25kg)는 8,585~10,107원 선으로 두달새 7,000원 이상 일제히 올랐다. 또 농가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경유 가격은 l당 800원으로 35% 이상 급등했다.

이처럼 산지가격은 물가상승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반해 사료값과 함께 시설유지 비용은 연일 치

솟고 있어 양계농가들이 한숨 짓고 있다.

강원농협 관계자는 "농가입장에서 사료와 기름값 인상으로 생산단가가 크게 올랐지만, 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져 소비자 가격을 쉽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하림, (주)마니커 등 국내 15개 닭고기 생산업체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을 인가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닭 한 마리를 길러 출하하는 데 드는 순수 생산원가만 1,430~1,450원이고, 여기에 도계비, 판매관리비까지 합치면 2,100원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 강원도민일보